

신은섭·정하늘·성낙송, 예측불허 연대 전쟁

부상 공백에서 회복한 정하늘
스포츠동아배 사나이 신은섭
신은섭의 숙적인 성낙송 주목
연대 세력 규합이 승리의 열쇠

제11회 스포츠동아배 대상 경륜이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광명 스피돔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2016년 우승, 2017·2018년 연속 준우승을 기록한 신은섭과 동서울팀의 단짝 정하늘, 2017년 3위에 머물렀던 성낙송이 출전한다.

이 밖에 수도권의 황승호, 김형완, 이태호, 전원규, 정재완, 인치환과 경상권 박용범, 류재열, 강호, 호남권의 이요뜸, 이명현 등도 출사표를 던졌다. 슈퍼특선급 정종진과 황인혁이 빠져 어느 때보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스포츠동아배 대상 경륜에서는 수도권이 6차례, 경상권과 호남권이 각각 두 차례씩 우승했다. 2015년 결승에서는 경상권 6명이 올라 이현구, 박용범, 황순철이 1위~3위를 싸웠지 않았다. 2016년에는 수도권 신은섭, 박병화가 1, 2위를, 2017년과 2018년은 수도권 정종진, 신은섭이 1, 2위를 거두었다. 정종진이 2연패를 기록했고 신은섭은 3년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23일부터 25일까지 광명 스피돔에서 열리는 제11회 스포츠동아배 대상 경륜은 정종진과 황인혁이 빠진 가운데 경주 스타일이 흡사한 신은섭과 정하늘, 성낙송이 맞붙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사진은 2018년 스포츠동아배 대상 경륜 결승에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선수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동아배는 전통적으로 수도권 강세가 이어진 대회이지만 올해는 수도권, 경상권, 충청권의 대결 속에 옛 명성 재현에 나서는 호남권의 도전도 주목된다. 또한 하반기 경륜 패권의 향방이 걸려있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주다. 부상 공백에서 회복중인 정하늘과 스포츠동아배 사나이로 꼽히는 신은섭, 신은섭의 숙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성낙송의 대결 구도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은섭은 정하늘에 역대 맞대결 전적 14승7패를 기록 중이고, 성낙송은 신은섭에 19승15패, 정하늘에 13승12패로 우세하다. 성낙송이 신은섭-정하늘 단짝을 상대

로 벅찰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맞대결을 통해 내성이 생겼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예상분석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기량이나 기세만 보자면 전반적으로 수도권이 유리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만 예선과 준결승을 거치며 수적 우세를 앞세운 지역팀이 유리하게 작전을 전개할 수도 있다. 최근 경주 흐름이 수적으로 우세한 팀이 주도권을 선점해 완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도권이 선전을 펼치는 이유도 연대 세력이 많아 전략을 수행하거나 입상에 함께 들어올 확률이 높았다.

‘경륜위너스’ 박정우 예상부장은 “정종진, 황인혁이 없는 가운데 경주 스타일이 매우 흡사한 신은섭, 정하늘, 성낙송이 맞붙는다는 점에서 누가 다수의 연대 세력을 포진시키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경주는 신은섭, 정하늘이 수도권을 대표하는 입장이며, 성낙송은 경상권을 대표해 막중한 책임감에 따른 중압감이나 신경전이 대단할 것이다”며 “자칫 세 선수가 과도하게 서로를 견제할 경우 의외의 복병에게 우승 기회가 올 수 있어 이번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심상철 우승...왕중왕전 최다 정상 기쁨 두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경정)

결승서 1번정 배정, 코스 이점 주요 박설희 결승 6착, 부부 수상은 불발

심상철(A1, 7기, 37세)이 경정 왕중왕에 올랐다. 15일 미사리 경정장에서 열린 ‘2019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경정 왕중왕전’에서 이주영, 박설희, 김현철, 서휘, 유석현을 따돌리며 우승했다. 2016년과 2017년 왕중왕전 2연패에 이어 이번 우승으로 왕중왕전 최다우승 선수가 됐다.

이날 결승은 다른 때보다 더 경정 팬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전날 예선에서 15경주 1위 심상철과 16경주 2위 박설희가 결승

에 동반 진출해 경정 최초로 부부 입상을 기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2018년 스포츠경향배 대상 경정에서 이태희와 이주영이 부부 최초로 함께 결승에 출전해 각각 3, 4위를 기록한 적이 있었다.

이와함께 심상철이 왕중왕전에서 최초로 3번째 우승을 차지할지, 아니면 전년도 우승자 김현철이 2연패를 할지, 서휘와 유석현이 첫 대상 경정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지 등도 관심을 끌었다.

전날 1위를 기록한 심상철이 결승서 1번 정을 배정받아 코스의 이점을 충분히 발휘했다. 최근 부쩍 기력이 상승한 4번 모터로 1주 회 1턴 마크를 인빠지기 전범으로 선두



심상철이 15일 미사리 경정장에서 열린 ‘2019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경정 왕중왕전’에서 우승하며 왕중왕전 최다우승 선수로 등극했다. 시상대에 선 심상철(가운데)과 서휘(2위·왼쪽), 이주영(3위).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에 나서며 경주 내내 1위를 지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3번정의 박설희는 6착

에 머무르며 부부 동반 입상에는 실패했다.

1주 회 1턴 마크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던 5번 정의 서휘는 0.11초의 빠른 스타트로 휘감아 찌르기를 시도했으나 3번 정 박설희와 접촉하면서 선속이 약간 떨어지는 위기를 맞았지만, 2등 모터인 120번의 기력과 전속 턴으로 결국 2위를 차지했다. 2번 정의 이주영은 1주 회 1턴 마크 선회할 때 박설희를 외입하며 공간을 만들어 찌르기로 서휘와 경합하다가 3착으로 끝났었다. 우승 상금은 1500만 원, 2위 1000만 원, 3위 700만 원이다.

심상철은 “팬 성원에 힘입어 우승을 차지했다. 스타트에 집중했고 1턴 마크를 제일 먼저 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는데 주효한 것 같다”라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정용운 기자

영등포지점 지정좌석실·희망길벚 개장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16일 영등포지점 지정좌석실 및 희망길벚 개장식을 개최했다. 7, 8층에 총 120석으로 조성했고 고객의 쾌적한 관람을 위해 배팅시설을 고급화했다. 커피, 다과, 예상지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휴게실에 안마의자도 설치했다. 또한 경륜경정 사업 건전화율 위해 장외지점에 과몰입 완화 공간과 중독예방 상담시설인 ‘희망길벚’을 9층에 설치했다. 전문상담사가 상주하면서 중독 예방 기초상담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 2차 치유상담을 의뢰하는 역할을 맡는다.

2019 경정 수상스포츠 안전교육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가 9일부터 19일까지 미사리경정공원에서 진행한 ‘2019 경정 수상스포츠 안전교실’을 진행했다.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가해 바나나 보트, 밴드웨건 등 각종 수상스포츠 체험 기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수상 안전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받았다. 행사에 참가한 김승희 학생은 “수상 스포츠 체험이 처음이라 긴장했는데 경정 선수와 함께 페어보트를 타고 시원하게 조정호를 질주할 때는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어서 좋았다. 1대1로 생존 수영과 심폐소생술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도 받아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상승세 탄 홈 팀 KT, 키움에 우세” 53%

야구토토스페셜 87회차 중간집계
KIA·롯데도 승리 예상이 압도적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쉐케이토토는 21일 열리는 2019시즌 한국프로야구(KBO) 3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토토 스페셜 87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참가자의 53.32%가 KT-키움(3경기)전에서 홈팀 KT의 우세를 전망했다고 밝혔다.

원정팀 키움의 승리 예상은 31.98%로 나타났고, 양 팀의 같은 점수대 기록 예상은 14.70%를 기록했다. 최종 점수대 예상은 KT(6~7점)-키움(4~5점)이 7.03%로 1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KT(4~5점)-키움(2~3점)과 KT(6~7점)-키움(2~3점)이 각각 6.13%와 6.12%로 그 뒤를 이었다.

박바지를 향해가고 있는 2019 KBO리그에서 KT와 키움이 만난다. 키움은 20일 오전 현재 리그 3위(69승48패)에 올라있다. 가을 야구 진출이 확정적인 키움과 달리 6위(56승1무58패) KT는 정확히 5할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5위 NC를 올라서야 희망이 생긴다.

KT는 1경기차인 NC의 벽을 넘어야 하지만 분위기는 좋다. 8월 초 부진했던 KT는 14일 롯데전부터 18일 KIA전까지 4승을 거둬 반등하고 있다. 이대은을 주축으로 주권, 김재윤의 든든한 볼펜을 구성한 KT는 특유의 지키는 야구를 토대로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다.

올 시즌 내내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키움이지만, 팀 내 불안요소가 최근 성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KT가 안방의 이점을 살려 강진인 볼펜을 잘 운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경기다.

LG-KIA전에서는 KIA의 승리 예상이 50.13%를 차지했고, LG의 승리 예상은 35.55%를 기록했다. 양 팀의 같은 점수대 기록 예상은 14.32%로 가장 낮았다. 최종 점수대 예상은 LG(2~3점)-KIA(4~5점)이 7.02%로 최다를 기록했다.

마지막 SK-롯데(2경기)전에서는 롯데 승리 예상(65.35%), SK 승리 예상(23.13%) 양 팀의 같은 점수대 기록 예상(11.52%) 순이었다. 최종 점수대 예상은 SK(2~3점)-롯데(6~7점)가 8.1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골프팬 71% “조정민, 하이원 오픈 1R 언더파”

골프토토 스페셜 24회차 중간집계

국내 골프팬들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19 1라운드에서 조정민의 언더파 가능성을 가장 높게 내다봤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쉐케이토토(www.ktoto.co.kr)는 22일 하이원CC에서 열리는 대회 1라운드를 대상으로 한 골프토토 스페셜 24회차에서 전체 참가자의 70.57%가 1번 선수인 조정민의 언더파 활약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2번 선수 조아연은 69.32%로 그 뒤를 이었고, 7번 장하나(62.52%), 5번 김아림(62.05%), 6번 박소연(59.83%), 3번 박지영(57.05%), 그리고 4번 이소영(52.76%)순으로 집계됐다.

지정 선수별 1라운드 예상 스코어에서는 박지영(27.36%)과 장하나(24.38%)가 3~4언더파를 기록했고, 조정민과 조아연, 이소영, 김아림, 박소연은 모두 1~2언더파가 1순위를 차지했다.

골프토토 스페셜 게임은 지정된 5명 혹은 7명의 프로골퍼의 1라운드 타수대를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타수대는 5언더 이하, 3~4언더, 1~2언더, 0(이븐), 1~2오버, 3오버 이상 등 총 6개 구간으로 구성되며 1라운드 최종 타수대를 모두 맞힌 사람에게는 해당 회차의 배당률에다 배팅금액을 곱한 만큼 적중상금이 지급된다.

베트맨 건전화 프로그램 인기 토토팬들 조회수 1만 5242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 트인 베트맨(www.betman.co.kr)이 8월 한 달 동안 진행하는 건전화 프로그램 이벤트 ‘무더운 여름 Cool하게 건강하게’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건강한 배팅 문화에 앞장서고자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20일 오전 9시 현재 1만5242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건전화 이용을 원하는 토토 팬들의 참여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이벤트의 경우 베트맨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전화 프로그램인 ‘셀프 진단평가’와 ‘셀프 구매계획’, 그리고 ‘건전구매 캠페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셀프 진단평가’란 회원 스스로 자신의 게임 의존성을 진단해 자신의 게임 몰입도를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 ‘셀프 구매계획’은 과도한 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회원이 스스로 한 주 동안 구매금액 한도와 횟수를 미리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건전구매 캠페인’은 올바른 스포츠토토 구매에 대해 알아보고, 건전구매 가이드라인 지키기를 통해 건전한 토토 구매를 실천할 것을 약속하면 된다.